

2013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자화상을 통한 현대여성의
자아실현과 소통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안희주

자화상을 통한 현대여성의
자아실현과 소통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Modern women's self-realization through self-portraits, and
communications.

2012년 11월 12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안희주

자화상을 통한 현대여성의
자아실현과 소통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지도교수 진 원 장

이 논문을 미술 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 술 학 과

안 희 주

안희주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상호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윤성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진원장 (인)

2012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
제2장 본 론.....	4
제1절 자화상의 의미.....	4
1. 자화상의 개념.....	4
2. 자화상으로 표현한 페미니즘.....	4
제2절 인형에 표현된 자화상적 시선.....	6
1. 인형 속에 투사된 자화상.....	6
2. 인형으로 본 현대 여성의 일상.....	7
3. 자화상으로 본 자기표현.....	8
1) 프리다 칼로.....	8
2) 신디 셔먼.....	13
제3절 본인 회화 작품 분석.....	19
1. 작업 형성과 배경.....	19
2. 자아의 표현.....	21

3. 자화상과 인형.....	22
4. 그로데스크적 표현.....	26
제3장 결 론.....	31
참고문헌	
학위논문	
도 판	

ABSTRACT

Modern women's self-realization through self-portraits, and communications.

- Focusing on my works -

Ahn Hee Ju

Advisor : prof. JIN, Won-jang

Department of Fine art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ocus on the subject of sensibility of women living in the modern era through the figurative model of "dolls", exploring the topics of female sexuality through the lenses of theoretical analyses and delineation.

The process of using 'self-portraits' as subject matter for expressing the "I", better enabled myself to become self-consciously aware of who this "I" exactly is, while at the same time also raising questions and better definitions of one self.

Self-portraits are used as means to express oneself in the most accurate way possible, and dolls are used as incarnate replicas of one self in this exploration.

Self-consciousness is the thematic element frequently visited within my works, and it's not just a mere realistic expression of facial features but using another incarnate version of "me" through the use of dolls as another medium.

Different self-portrait approaches on expressing one's inner qualities by notable contemporary artists like Frida Kahlo de Rivera and Cindy Sherman will be used selectively to find correlations and relevance on the time period and social phenomena.

Both women were known to be active in the feminist movement, and investigations on their roles and what their notion of western feminism meant will also be looked at. Their artistic concepts and works will be comparatively explored based on the common ground that they all deal with expressing the inner qualities of one self.

In addition perspective look on where feminism stands in the mainstream contemporary art and autobiographical self-representation on the works of these two painters will also be discussed.

This thesis, as a means of expressing the process of recognizing one's inner being and value as a woman in the modern era will be thoroughly explored. Utilizing the various approaches mentioned above, linking the female sexuality and expression of inner-self through my self-portraits and dolls will firmly establish how fragmented and culturally unstable the female sexuality is expressed through the projected images in our society.

Through this research, I intend to establish the significance of the female sexuality and usher in development of women themselves through these understandings and hope to proactively delve into the journey of self-exploration and inaugurate the path as an artist for the future.

제1장 서론(緒論)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자화상을 통해 작가는 자의식(自意識, self-consciousness)을 나타내고, 감상자는 화가를 탐구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신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작가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소재인 작가 자신의 외적인 형태나 내적자아의 심리뿐 아니라, 시대와 사조의 형상 및 삶의 방식까지도 자화상을 통해 표현한다.

본인은 인형을 통한 작품으로 자화상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인형은 사람을 닮은 조형물이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아기에 접할 수 있는 친밀한 존재로 소통의 대상이 된다. 특히, 미술작품으로써의 인형은 사람과 닮은 단순 조형물이 아닌, 작가의 분신이자 자아의 대체물로 간주할 수 있다. 인형의 이미지 속에는 무력하고 수동적이었던 과거의 여성상이 담겨있고,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능동적인 여성상도 담겨있다. 이처럼, 인형에는 조형적 특성과 생명체의 특성, 더불어 인간심리의 반영이 나타나고 사회의 유기적 질서구조도 나타난다. 이러한 인형의 양면적 속성을 회화적으로 분석하여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은 인간에 의해 생산되고 인간을 위해 사용되어진 사물, 즉 인간의 사용을 전제로 탄생된 인형의 존재성과 함께 나타나는 여성성에 집중했다. 인형이라는 생명 없는 매개체에서 느껴지는 텅 빈 공허감을 통해 과거 시대의 무력했던 여성을 시각화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보이는 존재로의 자아정체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인형을 통해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넘나들어 꿈을 키우는 가상의 자아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오늘날의 여성상을 그려내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현대 여성의 주체성을 은유적 이미지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본인 작품은, 여성의 욕망과 미묘한 심리묘사를 생명력과 함께 무한한 다양성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형이 갖는 특성과 상징을 통하여 본인이 앞으로 해 나갈 작품 활동에 투영될 자아를 찾고, 차후 작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향후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본인만의 결론에 접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와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인간이 자아성찰을 하기 위한 수단 중 가장 대중화 된 것은 일기이며, 자서전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일기나 자서전 속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저자의 내외적 모습 외에도 그 시대의 사회상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본인 또한 작품 속 인형을 또 다른 자아의 모습에 투영함으로써 본래 자아의 내면을 관찰하고 나아가 다양한 자아의 세계를 비교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 방법은 참고 문헌과 논문들을 통해 본인 작품과 유사한 작품을 분석하고, 결론에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을 유추하고자 한다. 얻을 수 있는 미학을 위해 지엽적인 부분들을 과감하게 배제하였다. 자화상에 나타나는 여성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하며, 본론은 크게 3절로 분류 할 수 있다.

1절에서는 자화상의 의미를 알고, 인형에 투사된 자화상을 통해 인형의 모습에 나타난 나의 얼굴과 현대 여성의 모습을 연구 소재로 삼았다. 본인과 현대 여성의 모습에서 내포되어 나타나는 자의식의 문제를 분석하고, 자화상을 통해 보여 지는 페미니즘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인형에 표현된 자화상적 시선으로 현대 여성의 자아실현을 담은 일상 표현에 대해 논하며, 본인의 작품과 비슷한 소재로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한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Frida Kahlo de Rivera)와 신디 셔먼(Cindy Sherman)에 대해 살펴본다. 여성미술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이들의 페미니즘 미술에 관한 개념과 서구 페미니즘 미술에 관하여 고찰하려 한다. 이 외에도 페미니즘 미술이 현대미술 경향의 한 주류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고, 두 화가와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자전적 자아표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인형을 단순 장식 소재가 아닌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본인의 회화작품에 대해 분석하려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작가 본인의 내면과 여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찾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을 토대로 본인의 작품 속에 나타난 자화상과 여성성을 연관하여, 확고한 여성 정체성을 유추하고 여성을 주체로 파편화 된 본인의 이미지를 인형에 투사하여 문화적 성으로서 불안정한 여성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본인의 자화상이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정체성을 탐구하는 주체적인 물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에 의의를 두고 여성 스스로가 발전되

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 본인의 작품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방향성을 설계해가며 작품 제작과정에 대한 의도와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2장 본 론

제1절 자화상의 의미

1. 자화상의 개념

화가가 그린 자신의 모습은, 다른 언어권에 속하는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당시의 시대나 삶의 축적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자화상’ (self-portrait)라는 용어는 라틴어 ‘portrahere’에 어원을 두고 있다. portrahere는 원래 ‘끄집어내다(drag forth), 발견하다(discover), 밝히다(revel)’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날의 ‘초상화를 그리다’라는 뜻의 ‘portray’가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아라는 의미의 ‘self’와 ‘portray’가 합하여 이루어진 ‘self-portrait’는 ‘자기를 끄집어내다, 밝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여기서 고전적 의미로의 자화상(self-portrait)은 자신의 내면적 진실성에 깊이 연관된다. 또한, 작가의 고백적 의미와 내적인 모습, 작가의 의식 및 의식적 요소들이 담겨있어 자신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화상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자 스스로가 원해서 그린 것들이기 때문에 화가의 본능과 자의식이 만들어낸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화상 제작에는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애(narcissism), 그리고 자기 정체성(self identity)의 규명에 대한 열의와 집착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2) 결국, 자화상은 자신의 외형적 모습과 내면적 자아의 표출에 대한 필연성을 호소하고, 자기와의 대결의식을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자신을 확인하는 흥미로운 내면의 예술이다.

2. 자화상으로 표현한 페미니즘

현대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지위 상승과 함께 다양한 분

1) 신자영, 「앤디 워홀의 자화상에 대한 연구」, 현대미술 논집, 이화여대미술연구회, 1994, p.22.

2) 조선미, 「화가와 자화상」, 예경, 1995, p.9.

야에서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은 나약한 존재이자, 수동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깨고 여성이 사회적 위치를 재정립해나가며 나아가 정치,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성성을 획득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를 페미니즘이라 한다.

페미니즘(feminism 19-20C 초)이란, 라틴어 페미나(femina)에서 파생한 말로서 본래 ‘여성의 특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³⁾가 있으며, 여성에 대한 억압의 개선과 해방을 역사적으로 검증하려는 실천적 요구를 반영하는 사회이론이다.⁴⁾ 페미니즘은 정신분석학, 실존주의, 마르크시즘, 해체주의 등 동시대의 다양한 학문적 영역들을 활용하여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여성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⁵⁾하는 것을 모토로 한다. 즉,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원인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성해방을 이루고, 나아가 인간해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신념이나 이론으로 볼 수 있다.⁶⁾ 초기 페미니즘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낭만적 개인주의 사상을 기본으로 부계사회에서의 성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여성의 인간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페미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개념의 문제는 페미니즘 미술가들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다. 갖가지 페미니즘들이 여성압박에 대한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여성의 권리 획득을 위해 성차별(性差, sex difference)에 의한 여성의 억압 상태를 묘사하려 하였다. 그러한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여성의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 사회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다름 아닌 페미니즘 미술인 것이다. 페미니즘 미술은 본질적으로 여성의 이미지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이미지가 작품으로 재현됨에 있어 단순히 해부학적 구분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관점을 제시하는 문화적 장치로 발전해 왔다.

자화상으로 표현한 페미니즘 미술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재정립, 나

3) 이혜숙, 「여성과 사회」, 경성대학교출판부, 2005, p.20.

4) 김금운, 김정숙, 박영희, 서리나, 송경용, 오세근, 이석주, 이주희, 전의찬, 황광연, 「현대여성과 사회」, 양서원, 2001, p.48.

5) 민들레, 「미술에 있어서 페미니즘의 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1994, p.2.

6) 이혜숙, 「여성과 사회」, 경성대학교출판부, 2005, p.20.

아가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가부장제 속의 억압된 여성이 현대 페미니스트적 여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인은 인형을 통해 수동적 여성과 현대의 능동적인 여성을 보는 과정과 함께 타인을 보는 억압상태를 묘사하고자 하였다. 인형은 “주체가 그 자신 속에서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따라서 자아로부터 추방되어 다른 사람이나 사물들 속에서 위치하게 된 특성, 느낌, 소망, 대상”을 의미⁷⁾ 한다. 이를 토대로 한, 작품 속 자화상은 여성으로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과거와 현재 구분을 통해 표현하려 한다.

제2절 인형에 표현된 자화상적 시선

1. 인형 속에 투사된 자화상

인형(人形, doll)은 인간의 형태를 닮은 조형물로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는 친숙한 대상이다. 때문에, 그 어떤 조형물보다도 만드는 이와 보는 이가 쉽게 이입할 수 있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단편 외에도 일정한 보편성을 지니고 당대 사회 문화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각기 다른 시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미니어처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움직이거나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인형을 일종의 분신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통한 욕망과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인 또한 인형을 통해, 투사된 자화상을 표현함으로써 여성적 자아를 드러내고 시대와 소통하는 상징물로 비추어 지기를 의도했다. 인형을 통해 나타난 자화상은 작가 자신의 여성성과 함께 자의식을 객관화 하려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즉, 인형을 통해 본인의 심리적 감흥의 은유를 나타내었다. 본인과 인형이 분리된 존재가 아닌 동일해질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인형을 보는 이로 하여금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체의 존재감을 더욱 인식시킨다.⁸⁾

7)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 세미나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p.143.

8) 김지영, 「인형에 투사된 자아인식의 표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p.10.

연구자는 인형을 통해 자화상으로 보인 여성의 감수성과 심리적 상태, 그리고 나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고자 한다.

2. 인형으로 본 현대 여성의 일상 표현

오늘날 여성의 사회 진출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늘었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은 과거 가부장적 사회 속 전통적인 성 역할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사회 또한 여성에게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달라진 여성상 속에서 여성적인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연구자의 작품이 어떠한 점에서 여성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여성의 자아실현과 어떻게 연관되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을 제시하려 한다.

연구자 자신이 꿈과 낭만을 그리는 여성 몽상가가 되어 여성적 환상을 의인화하여 메타포인 동시에 작가 자신의 알레고리적 자화상을 표현하고자 한다.

인형은 인간의 대체물로 여성의 감성과 자아를 담는 또 다른 존재이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 할 수 있는 상징이다. 즉, 소재로써의 의미 외에 다양한 의미가 함축된 주체로 표현된다. 사물이 갖는 상징성은 일회성이 아니다. 예술은 사물의 본래 가치, 기능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관찰자는 묘사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내고 주체적인 대상이 ‘상징’의 의미를 갖추게 한다. 이 같은 이미지들을 생산해 낼 수 있었던 점은 다양한 인형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상징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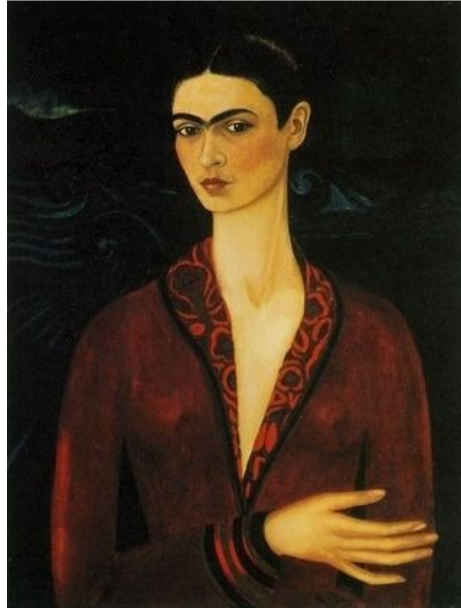
현대 여성 심리를 외부로 표출해 객관화 시켜 타인으로 분리하는 형태를 이루기도 하며, 보여 지는 존재로써 타자적인 시선과 동일시하려 한다. 여성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본인 자신을 인식하고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하여 감성과 오성 사이에서 표현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현실과 유리된 채 다양한 형태로 살아간다. 때문에 작품과의 만남을 통해 삶에 대한 깊이를 더하고 조화를 추구하여, 자아성찰을 위한 면밀한 탐색을 하려 한다.

9) 민들레, 「현대인의 감성을 투사한 인형을 통한 작품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2012, p.8

3. 자화상으로 본 자기표현

1) 프리다 칼로 (Frida Kahlo de Rivera, 1907-1954)

여성혁명을 외친 화가 프리다 칼로(Frida Kahlo de Rivera, 1907-1954)는 그림을 삶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여기며, 독보적인 예술세계를 표현했다. 그녀는 길지 않은 생애에 걸쳐 200 여 점의 작품과 자화상 55 점을 남겼고, 그림을 통하여 자신의 생애를 진솔하게 보여주었다. 칼로는 자화상을 그린 멕시코 최초의 여성 화가이며, 전차 사고 이후 병들고 나약해진 스스로를 소재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불편한 거동으로 인해 자신의 자화상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 상황이 멕시코 제일의 예술가를 탄생시킨 것이다. 멕시코의 혁명기를 살았던 프리다 칼로는 20세기 후반, 드라마틱(Dramatic)한 삶을 살다간 제 3 세계의 여성으로, 여성주의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초에 시작된 페미니즘미술운동과 포스트모던한 시대의 문화조류인 “복합민족 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의한 시대적 조명 덕분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적인 불행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녀의 강렬한 삶의 방식과 멕시코의 전통에 기초한 그녀만의 독특한 회화적 탐구가 많은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그녀는 멕시코의 전설적인 여성화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프리다 칼로는 자신 앞에 놓인 냉정한 삶을 그녀만의 시각적 언어로 옮겨놓은 작업을 통하여, 현실을 극복하고 의지를 다졌다. 많지 않은 그녀의 작품 중 대부분은 본인과 주변 인물들의 초상이며, 특히 “고통 받는 자아의 표현”을 일관적인 주제로서, 여성 고유의 현실체험을 포괄적이고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이는 프리다 칼로를 영웅적인 페미니트로 불리게 했다. 일생에 대한 단순한 회화적 표현을 떠나서, 칼로의 자화상은 육체적 자아와 정신적 자아의 화합과 갈등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20세기 자화상 중에서도 대표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그녀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관찰 했다. 자화상을 통해 육체적 자아와 정신적 자아를 동시에 묘사하고, 수동적 감상자나 자기연민, 성적인 관찰대상으로서가 아닌 강한 삶의 열정을 지닌 자주적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그린다. 자화상에서 묘사된 칼로는 사막 같이 공허한 장소를 배경으로 울고 있거나, 여러 번의 수술 때문에 남겨진 깊은 상처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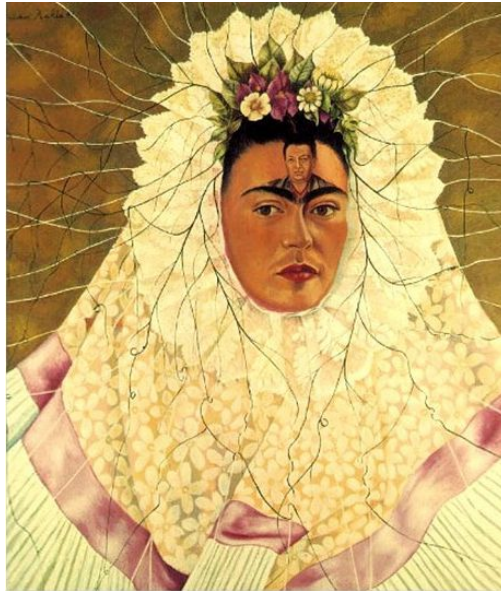
(도판-1)

을 드러내고, 유산으로 인한 출혈, 화살에 찔려 피를 흘리는 모습, 디에고 리베라의 아내로서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등 다양한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그림들은 자신의 일생에 대한 솔직한 기록이다. 불성실한 남편을 둔 병약한 여성이 당면한 고통스런 현실의 결과물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던지는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녀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공감하게 만드는 보편성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벨벳 드레스를 입은 자화상>(도판-1)은 가장 잘 알려진 프리다 칼로의 첫 번째 자화상이며,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 작품은 사고 직후인 19 세의 자화상으로 반 측면으로 기운 표정에서 도도함이 묻어나고, 뚜렷한 이목구비(耳目口鼻)에 과장된 긴 목, 우아한 손동작으로 연약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1445-1510)¹⁰⁾ 그림에 매료됐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며, 얼굴에서도 멕시코 여인의

10) 산드로 보티첼리 (Sandro Botticelli, 1445년경 ~ 1510)의 본명은 알레산드로 디 마리아노 디 반니 필리페 피(Alessandro di Mariano di Vanni Filipepi)다. '작은 술통'이라는 뜻의 보티첼리는 본래 형의 별명이었다. 가족장인의 아들로 피렌체에서 태어나 금 세공사 훈련을 받고 18세기에 가르멜파 수사였던 화가 프라 필리포 리피에게 그림을 배운다. 화가들이 속한 성루가 길드에는 1472년 가입했으나 1470년부터 독립되어 활동했던 것으로 보임.

분위기보다는 유럽 상류층에 가까운 강인하면서도 고귀한 표정이 읽힌다.¹¹⁾ 간결한 구도에서 보인 제한된 색채와 우울한 배경으로 강렬한 느낌을 주는 붉은색 옷에 검은색을 혼합시켜 벨벳 느낌의 옷감을 표현했다. 이 작품에는 그녀가 사고 후 목격된 자아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녹아있으며, 그림은 사고 후 그녀의 삶에 대한 애착과 일상의 에너지를 제공한 강력한 원동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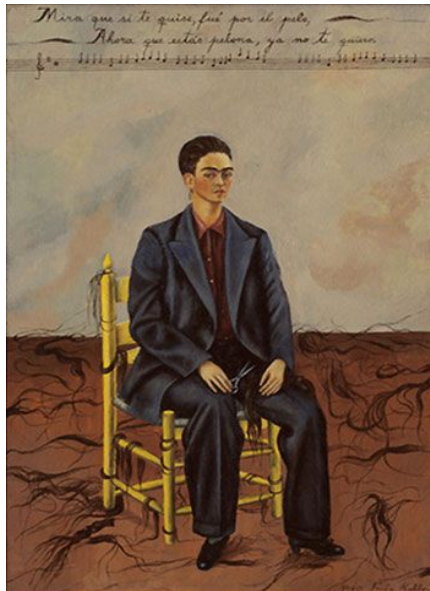
(도판-2)

<테우아나를 입은 자화상>(도판-2)작품에서 프라다 칼로가 입고 있는 테우아나는 모계성향이 강한 지역의 멕시코 전통 의상이다. 마치 드레스를 연상케 하는 하얀 순백의 의상은 프리다 칼로의 순결함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독립된 자아를 나타내며, 머리의 꽃 장식에서 사방으로 퍼져 나온 줄기들은 디에고 한 남자에 대한 집착으로 보인다. 남녀의 구별을 뛰어넘어 동등한 인간으로 똑바로 서고 싶다는 프리다의 가치관이 자화상에서 나타나는 남성적 이미지를 통하여 목격된다. 자신의 얼굴을 남성적 분위기로 묘사하였으며, 동시에 순진하고 푸근한 아줌마의 인상을 함께 심어 놓은 것이 인상 깊다.¹²⁾

11) 전준엽, 「나는 누구인가」, 지식의 숲, 2011, p.168.

12) 전준엽, 앞의 책, p.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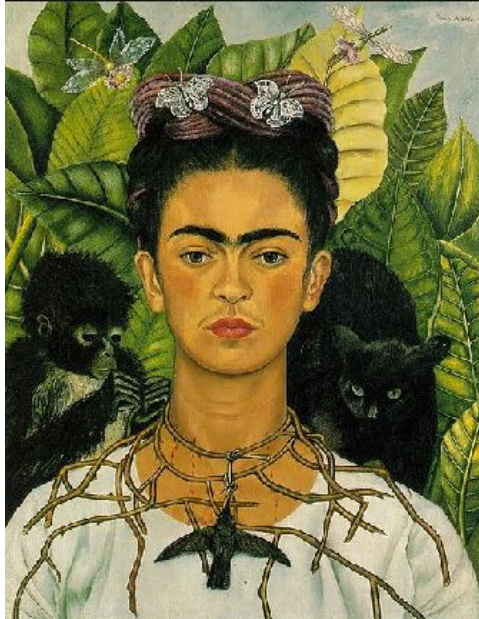
자전적인 의미가 강한 프리다 칼로의 작품들은 미술사적 맥락 안에서 심도 있게 이해되기보다는 대부분 그녀의 생애와의 원인 관계 내에서만 해석되어 왔다. 특히 변혁기 멕시코사회의 특이한 삶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화가라는 인식은, 그녀의 작품이 불구화가에 의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의 표에 불과하다는 편견을 제공하기도 했다.



(도판-3)

1940년 <잘라버린 머리의 자화상>(도판-3)에서 그녀는 표정이 없다. 과거 대부분의 자화상에 등장했던 여성적인 의상 대신 큼직하고 어두운 색조의 신사복을 입고 있다.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고, 그녀의 주위에는 잘린 머리털이 산재해 있으며, 화면 위쪽에는 당시 멕시코에서 유행하던 노래가사가 적혀있다. 가사는 그림과 함께 화면 속의 프리다의 행동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성스러움의 상징인 긴 머리도, 태우아나 의상도 없이 앉아있는 그녀의 자립과 결의를 완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그녀의 자화상에는 순탄치 못했던 그녀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장면의 묘사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자기 연민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하고 냉정한 표정에서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려는 묵직한 결의를 엿 볼 수 있는데, 그녀의 자화상들이 강인함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솔직함과 창조적 기교가 한 데 섞여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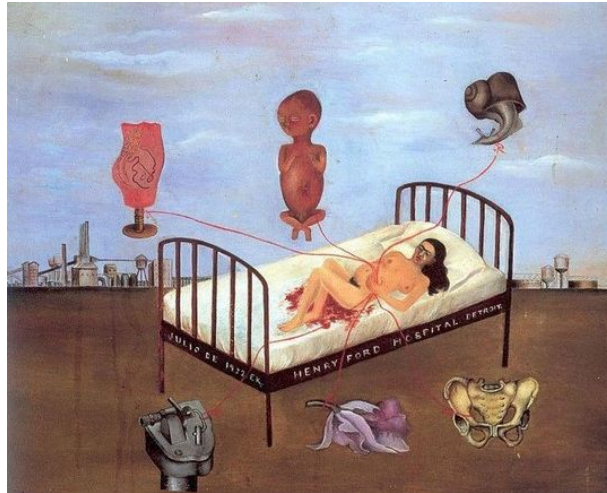
47년,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는 육체적 고통, 불임의 공포, 삶과 죽음이 주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동시에 그녀의 창조력과 상상력의 근원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많은 감정들을 함께 내보였다.



(도판-4)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도판-4) 자화상 속에서 그녀는 당시의 상황과 심경을 피력할 수 있는 여러 상징물들을 삽입하였다. 주변 삽입물들은 꼼꼼하게 변형되고, 뒤틀려 있지만, 자신의 모습은 반듯하고 단호하다. 짙고 술이 많아 날개를 편 새 같은 눈썹, 곧고 강렬한 코, 입술 위의 잔잔한 수염, 아무지게 다문 입 등 칼로의 표정은 마음을 읽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자화상에 대한 칼로의 주관을 보여 주는 단서가 된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과의 대결의식을 갖거나 스스로를 집요하게 탐색해 나갔던 화가들과는 달리, 칼로에게 자화상이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대한 자신의 연상 심리를 캔버스 위에 형상화 한 결과였다. 유럽풍의 옷을 입은 그녀의 얼굴 표정은 항상 침착하고 무게감있다. 그녀는 화폭 속 또 하나의 관찰자로서 모든 작업을 관찰하는데, 이런 객관적인 태도는 역설적이지만 자화상 제작을 통한 마이너스 감정들의 분출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자화상 작업은 보다 나은 자화상을 그리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다. 그녀는 다른 작가들보다도 더 많은

자화상을 그렸으며, 죽을 때까지 줄곧 자화상을 그렸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뒷받침 해준다. 자화상은 그녀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그녀 자신이 었다. 그녀는 자기 스스로 전설을 창조해 냈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뒤얽힌 자의식을 소유했다.



(도판-5)

<헨리 포드 병원>(도판-5)는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칼로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으며, 고통과 절망이 삶의 의지와 뒤섞여 죄화를 이루고 있다. 칼로의 각박한 삶과 단호한 의지는 항상 상충되어 왔기에, 칼로의 마음이 더 깊게 묘사된 작품일수록 우리는 모호함과 모순을 보다 쉽게 목격할 수 있다.

2) 신디 셔먼(Cindy Sherman, 1954~)

신디 셔먼은 사진을 통해 본인의 신체로 정체성을 위협받는 여성을 표현했다. 또한, 퍼포먼스와 시각예술을 결합하고 개념미술(conceptual art)과 신체예술(body art)을 독자적으로 확장시켜, 여성의 눈으로 본 여성의 이미지를 결과물로 남겼다. 그녀는 여성을 대표하는 작가로, 그녀의 자화상은 그녀가 여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많은 자화상 작품에서 당대의 사회적인 분쟁과 쟁점들 그리고 성인식 등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시대마다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도 열정 하나로 작품 활동을 하였다.¹³⁾

신디 셔먼은 동시대 구조 속에서 사회적 범주가 부과한 성으로의 여성 정체성, 재현, 오염, 터부, 희생에 대해 언급했다.¹⁴⁾ 여성으로서 자신의 신체를



(도판-6)

이용한 연출과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를 통해 작품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내면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표현하였다. 자신을 매체로 표현한 시각적 이미지와 알레고리적 의미로 형성된 7가지 주제¹⁵⁾의 과정으로 외인격 여성상의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신디 셔먼 사진작업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흑백시대(1977-1980)의 <무제 21>(도판-6)는 그녀의 초기작으로 자신의 초상화로 회화적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모방하였다. 당시 그녀는 흑백 사진작업으로 자기변용(自己變

13) 김희조, 「자화상의 표현 양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p.17.

14) 이성희, 「자화상을 통한 여성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p.35.

15) 1977-1980 : The Untitled Film Stills <무제사진 스틸> 1940-60년대의 미국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스틸컷을 연출.

1981-82 : Full Color Close-up 포르노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로 신체의 부분을 솔직하게 보여주며 화면전체를 자신의 자화상 형태로 변형.

1983-84 : 패션사진 자신이 제작한 옷으로 직접 연출하여 패션모델을 패러디하고 역정된 여성표현.

1985 : Fairy Tales <옛날 이야기> 원시적인 과거를 상기시켜 환상을 갖게 하며 사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자 마약중독 환자, 불량배, 기형인 등을 괴기스러우며 복잡하고 충격적인 이미지 구성.

1986 : <탕빈 광경> 바위 표면에 놓인 콤팩트, 토사물, 선글라스, 지저분한 식탁, 아무것도 없는 광경, 무표정한 공간 등 셀프 포트레이트가 아닌 자아가 상실된 인공적인 환경을 소재로 촬영.

1988-90 : History Portrait <역사초상화> 자신을 다양하게 객관화 하여 인간의 일반적 생활을 냉정하게 풍자하여 구성 '역사초상화' 를 패러디 하며 영화속 인물로 분장하는 등 모더니즘시대의 표현방식으로 보여지는 15-19c 후반의 유럽 귀족의 초상화 등 평범한 여성들은 대중화 시켜 담당함과 고유함으로 구성.

1997 영화 '오피스 킬러<Office Killer>'를 제작 할리우드를 선망하는 여성의 허무한 모습, 불혹에 이른 아역배우, 40대 후반의 중산계급과 중년 여성들을 묘사하고 추한 화장과 의상으로 묘사되며 여성의 외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삶의 찌든 할리우드의 이면을 드러냄.

容, self-transformation)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때문에, 자신만의 캐릭터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표현한 퍼포먼스적 요소가 드러나 있는데 <무제56> (도판-7)에서 화장을 하고 의상과 상황 연출을 통해 자신의 얼굴에서 타자의



(도판-7)

또 다른 얼굴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했다. 여기서 예술로서 자신을 통해 표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무제 필름 스틸」 연작을 살펴보면,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서 여성의 모습이 왜곡되어가는 과정과 여성 심층부에 있는 자아의 층을 공연예술과 사진, 영화 스틸을 이용하여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다.¹⁶⁾ 이는, 개인의 이미지보다 사회적 시선으로 묘사된 여성의 사진을 통해 구성된다. 또한, 여성의 정체성을 제공해 주는 신체적 요소를 비롯한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알레고리적인 신디 셔먼의 개성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정체성을 제공해주는 신체적 요소들의 문화화된 형태들 즉, ‘여성으로서의 옷 입기, 여성으로 처신하기, 여성으로 표정 짓기’ 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이며, ‘남성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 자신의 시선에 대한 비판’이다.¹⁷⁾ 신디 셔먼의 1992년 「내전(civilwar)」 시리즈에서는 조각인형을 사용하여 생식기관과 신체부분을 묘사함으로써, 여성으로서 느끼는 불쾌감모욕이 담긴 괴이한 진실을 속삭이게 만든다.

<무제183>(도판-8)의 작품에서 보이는 조각인형은 이전시대의 무력하고 여

16) 강격숙, 「신디셔먼의 미술 사진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9, p.13.

17) 이영준, 「사진속의 신체 감시와 찬미의 변증법」, 월간미술, 1977.10 p.165.



(도판-8)

성의 수동적인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체화 시켜, 현대 시대 여성의 모습을 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로데스크한 페이스의 조각인형에서 보이는 섬뜩함은 우리의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하여 감정을 그대로 빨아들이고 있다.

신디 셔먼은 상품화된 아름답고 화려한 인형이 아닌, 분열되고 해체된 조각인형으로 연출하여 오늘날의 여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괴이하고 기형적인 <무제253>(도판-9), <무제259>(도판-10) 조립 인형들의 구성은 섹스(sex)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미지를 왜곡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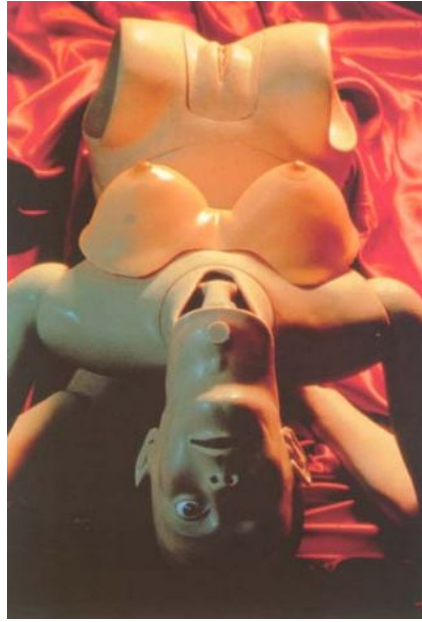
신디 셔먼 「내전」 시리즈의 조각인형들은 연구자의 작품과 가장 큰 유사성을 보이는 시리즈다. 소재나 신체부분의 변들거리는 그로데스크적 표현으로, 여성의 신체적 정체성과 내면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인형에 투사 시켰다. 내려 온 인조가슴을 단 여인은, 과학적 허구에 대한 작가 고유의 상표인 ‘꾸며 낸’ 성에 기초하여 풍부한 상상력의 변형을 암시한다.¹⁸⁾

신디 셔먼은 사진 속 자화상을 통해 현대여성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작가로, 작품을 만들 때 자신이 아닌 사진 속 ‘나’에게 정신분석학을 접목시켜 ‘에고(ego)’의 적나라한 해부를 시도하였다. 자기 상실의 모습을 기괴하거나 퇴폐적인 영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에 대해 철저히 객관적이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충실해야 하는 모순을 극복해야지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18) 전성주 「페미니즘 미술의 특성에 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p.35.



(도판-9)



(도판-10)

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정체성의 혼돈 속에서 타인으로 분장한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 셔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매체가 인간의 내면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¹⁹⁾

「헐리우드 초상화」(2000-2002)시리즈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의식하고 색채와 시각을 변화시킨,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인물을 통해 감성적인 신체미술을 시도한다. <무제355>(도판-11)에서는 여성적 욕망을 모티브로, 헐리우드 여배우의 화려한 화장과 사치스러운 분장으로 자신만의 도도한 이미지를 과시한다. 신디 셔먼은 이와 같이 영화적 시각의 사진 시리즈를 연이어 제작하면서, 여성과 여체가 대중매체와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초상화와 초현실주의적 사진 등의 온갖 사료들로 총망라하였다. 또한, 영향력 있는 현대 이미지에 의해 묘사되어 온 수 많은 방식을 탐구하여 다양한 재현적 수사어구들을 모방하고 다루어 왔다.²⁰⁾

<무제458>(도판-12)에서의 변형을 통한 타자의 자아표상은 신디 셔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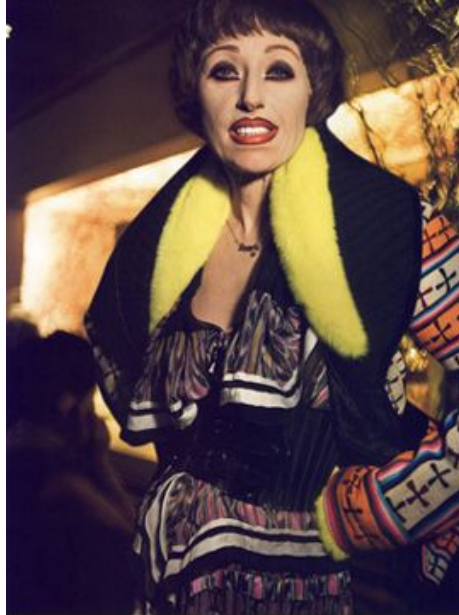
19) <http://mail.hyejeon.ac.kr/~takang/hobol.html> (2002.4)

20) 강격숙, 「신디셔먼의 미술 사진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9, p.57.



(도판-11)

작품 성격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이 사회에서 자아구조를 구축해온 것과 같은 페미니즘 시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과 여체가 대중매체와의 통합을 위해 덧 칠해진 자아상을 가지고 융화되어간다는 착각 속에서, 신디 셔먼은 자신의 잃어가는 정체성과 왜곡되어가는 감을 할리우드식 분장을 통해 이미지화 했다. 또한, 그녀는 사진을 통해 여러 유형의 여성을 연출하면서 여성의 신체가 문화적으로 받는 차별을 드러내었다. 반면, 파편화된 충격적인 성 이미지를 보여준 최근의 작업에서는 오늘날에 여성신체가 감당하고 있는 성문화를 은유적으로 비추고 있다. 셔먼은 궁극적으로 분장된 사진의 모습을 통해 현대사회에 대한 이해를 원했고 표현하기를 바랐다. 때문에, 셔먼의 작품 대부분은 패배적이고 순종적이며 체념한 상태에서의 피해의식이 자아의 표상에 드러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전 세대에서 보고 자란 대중매체와 관련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무제필름 스틸>이 실제로 어떤 영화도 모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가 창조해 낸 이미지에 훈련된 대중들이 그녀의 작품을 바라보며 공통의 이미지들을 떠올리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적 배경을 눈에 익힌 신디 셔먼의 작품 시리즈는 대중의 착시현상과 선입견에 의지한다.²¹⁾



(도판-12)

그녀는 자신의 타자화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보여주고, 사실적 재현을 통한 여성의 이미지들로 예술을 창조했다.

제3절 본인 회화 작품 분석

1. 작업 형성과 배경

연구자는 자화상을 통해 여성의 심리상태를 자아와 함께 표현하려고 하였다. 어린 시절 순수한 동심을 간직한 어린 소녀의 이미지에서, 점차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스스로 외화 시켜 나가는 여성의 미묘한 심리를 자화상에 나타내었다. 여성 고유 영역인 여성성을 드러내는 매개물로는 인형을 선택하여 인물을 연작으로 하는 연구자의 작품에는 모두 인형이 등장하며 헤어스타일 및 소품, 의상의 변화로 재미를 주고자 하였다.

화려한 색채와 감각적인 형태로 인형을 표현하고, 여성의 내면에서 우러나

21) 강경숙. 「신디 셔먼의 미술사진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p.68.

오는 성격과 사회생활 속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서 병행해 가는 여성의 모습을 멜랑콜리적 심리 변화를 통해 표현했다. 또한, 현대인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담아 감상자들이 그 반 존재자들의 눈망울을 보는 동시에 우리 내면의 눈이 깊어지는 것을 꾀했다.

현대 사회에서 강요하는 성적 대상의 여성상에 대해 팝 적인 인물 연작으로 화려하고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성적 대상이 된 여성상이 지배하는 현대 대중문화의 통속성을 팝 적인 회화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형은 우리의 감정과 모습을 대신 표현한 매개체로,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욕망과 사회적 관계를 표현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얼굴에서 보이는 다른 표정들과 신비스런 눈동자, 제스처를 통해 인형 속에서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본 작업은 유화와 평면위주로, 현재까지 수행해 온 회화작업과 앞으로 진전시켜야 하는 작업의 방향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작업자로서 세계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조형의식을 출발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향후 작업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 평면적 기초행위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때문에 평면이라는 일련의 작업은, 작업의 결론을 유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리기’를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화의 의미 찾기를 위한 과정이다.

회화의 결과물이 사회 문화와 역사에 대한 텍스트로 존재 할 수 있는 이유는 회화에 구현된 작가의 의지와 정신 때문이다. 감상자는 결과물을 통해 작가의 정신을 본다. 때문에, 결과의 유사성보다 그 곳에 투영된 최초의 의도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도에서 형태의 유사성을 비교하고 각 작품의 의도를 살펴야 한다. 이는 완성을 위한 반성의 과정이다. 즉, 가능성을 갖지 못한 그림들은 과거로부터 끌어들이고 다시 반성의 시간으로 후퇴시켜, 되돌아볼 여지를 부여하는 과정인 것이다. 반성에서 시작된 작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성찰의 가능성을 찾고, 본인의 차후 작업의 방향을 잡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작업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 유보되었던 결론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한다. 언어를 다루는 작가의 표현된 언어만을 가지고 누구나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듯이, 회화적 작가는 작품을 통해 말하는 것을 입증하고 새로운 미적인 감각을 만들어 제공하는데 목

적이 있다. 동시에, 회화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예술로 환원되기 위해 경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형태를 바꿔야 함을 연구해본다.

2. 자아의 표현

자아는 인간 개인을 파악하는 기본 개념이다.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개인의 총체적인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자아는 대상이자 동시에 과정이며,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환경과 자신의 대한인지를 강조하는 것이다.²²⁾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주제가 되기에 앞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은 자신의 현존을 확신하고, 과거와 미래를 소유할 것을 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행위 및 기대와 상상 속에 나타나는 미래의 행위와 관련된 개인적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행공에 지속성과 향상성을 부여한다. 그 시간의 축에서 주위의 대부분의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한다. 때문에 변하지 않는 자신에 관하여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자 한다.

예술가들의 자아 표현은 인간의 본질 및 생명력과 영혼을 나타내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진다. 이때의 표현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작가의 일상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내적 감정의 세계로 이를 경험적 자아라 한다. 예술 작품은 이러한 경험적 자아를 예술적 형식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쉽게 말해 자아는 자기 자신의 총체적인 집합을 뜻하고, 인간 개개인이 소유하고 추구하는 특성, 능력, 목적과 활동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아우르는 추상 개념이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자아는 관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자화상 속에서 근본적인 자아를 찾고 현대사회 속에서 갖고자 하는 모습을 담아내려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의 <수줍은 소녀>(도판-13)작품은 ‘나’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지만 동시에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반영한다.

22) 전지원, 「자화상을 통한 ‘자아’ 표현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p.1-2.



(도판-13)

현대사회의 여성들은 개개인 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드러내지 못한다. 연구자 또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만큼 더욱 강하게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때문에 가슴 속에 쌓여서 끓고 있는 자기표현의 욕구를 그림속의 ‘나’를 통하여 분출시키고, 그것을 감상자 들이 느꼈을 때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고 성숙한 자아로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예술작품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아를 예술적 형식으로 표현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3. 자화상과 인형

자화상(自畫像)은 자기 자신을 사실적이며, 인상적으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회화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인물화는 사람이나 행위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추구한다. 그리고 욕망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인식과 독창적 인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이 갈등은 흔히

언급되는 거울의 비유로 설명된다. 거울 속에는 또 다른 ‘나’의 욕망의 시선이 존재한다.²³⁾ 자화상의 영역에서도 표현양식의 변화와 함께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된 표현을 넘어서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신에 대해 탐색한다.



(도판-14)

<자화상>(도판-14)은 시각적 자극을 주는 형태로 외적으로 보여 지는 완전한 형태로 표현한다. 감정의 전달과 자의식을 자신만의 고유한 기법으로 내면세계와 시대적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화면에 보이는 ‘나’의 이미지는 무표정하며 무엇인가를 응시한다. 푸른색이 주조가 되어있는 이 작품은 차가운 얼굴과 금빛 머리카락의 보색 대비로 색의 조화를 이루며 차갑지만 따듯함이 묻어난다. 초점 없는 붉은 빛의 눈은 감상자를 바라보고, 과거의 기억 속 나를 바라보는 인형으로 표현하고 겪어온 사건들을 기록한다. 마치 물속에 비친 자신을 보듯 인형으로 표현된 자화상은 스스로 객관화 하는 것과 동시에 자의식을 나타내며, 인간의 몽환적 상태와 여성적 특수한 감정의 성격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인형을 얼굴에 차용한 회화적 초기 시도는 2010년에 처음 시도됐으며, 본 작업을 시도하고 나서 인형이라는 매체가 본인에게 회화적 주제 설정에 매우 유익하게 되었다. 그 인형은 바로 자신이며, 내적인 모습을 분석하게 되었다. 본인의 첫 자화상은 <분신1>(도판-15)작품이다.

23) 우성주 「프리다 칼로, 타자의 자화상」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6, 2011, p.25.



(도판-15)

자신을 모티브(motive)로 작업에 응용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인형이 곧 자신이며, 자신으로 본인의 얼굴이 인형에 투사됨 또한 즐거운 표현 방법의 시도였다. 붉은 빛의 얼굴에서 입체적인 이목구비의 표현으로 인형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평면적인 머리카락은 흘러내리는 듯한 웨이브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다. 인형의 표정은 무미건조하며, 상실감으로 아무런 감정이 없음을 표현한다. 얼굴색과 같은 단순한 배경이 이를 한층 더 인형의 형태와 이를 통해 인형은 인간의 형태를 닮았지만 누군가에 의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듯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과거의 남성에 의존하던 여성의 모습을 나타낸다. 연구자 역시 현재의 ‘나’의 모습을 한 인형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자아를 찾고, 나아가 사회에서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의 작업은 자화상으로 이루어져오면서, 인형에 비친 얼굴에서 시작하여 손과 발 그리고 사진 속 ‘나’로부터 정체성을 깨닫고,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읽어나간다. 표정이나 제스처들을 탐색하여 작품제작의 기본적인 도구 ‘나’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은 거울을 볼 때이며, 이때가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크기의 거울이든 그 속의 ‘나’와 대면하게 된다. 이는 여성으로서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선이

될 수 있다.

거울속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장 흥미롭고 바라본 곳은 눈이다. 그만큼 작품에서도 가장 세밀한 작업을 필요로 하며 눈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감정의 표현이자 사람의 인상은 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꿈의 궁전>(도판-16) 인형의 눈은 자립할 수 없는 현실에서 느낀 상실감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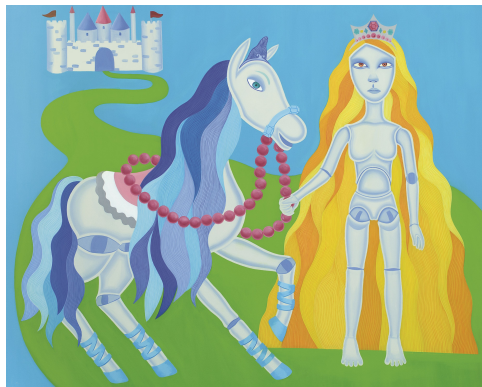
(도판-16)

눈은 자립할 수 없는 현실에서 느낀 상실감을 표현하며,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 본인의 형상을 바탕으로 무감각하며 상실한 모습을 무표정한 얼굴로 담았다. 인형의 눈은 타자화 된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선이며, 인간으로서 고정된 성격으로 내면의 다양한 의미를 전달한다. 작품을 감상하는 행위는 자신을 형상화, 구체화 시켜놓고 있는 대상을 통해 예술가와 마주하는 일이다. 이는 대상자와 감상자를 필요로 하고, 보는 사람의 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형은 눈으로 본인의 의도를 특정한 시선으로 보여 주며, 외적으로 드러난 사고와 감정의 표현 뿐 아니라, 여성들의 심리상황을 작품에 반영하고, 감상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눈으로 표현된 여성의 시선은 사회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아에 대한 관심과 치열한 사회 속에서 갖는 외로움, 고독, 두려움, 등 세상에 지친 내적 감정을 이야기 한다. 인형의 눈을 통해 화려한 군중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하는 갈등의 표현이며, 작품에

서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 흰자에 컬러풀한 동공과 하이라이트로 시선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신비로운 눈동자를 표현하기 위해 세밀한 손길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작품의 생명력과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고, 에너지와 감흥을 느끼게 한다.



(도판-17)



(도판-18)

<자매>(도판-17), <백마타자 바비인형>(도판-18)에서 단순한 배경 속에 보이는 궁전은 평면 속에 화려함으로 꿈을 향한 이상향의 표현이다.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완벽하게 이루고 싶은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위치로 진취적인 여성이 되고자 하는 꿈의 표현이다. (도판-18)인형과 함께 보이는 말은 인형의 머리카락과 같은 갈퀴의 표현으로 여성의 상실된 꿈과 현실의 소통의 역할을 해주며, 여성의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표현된다.

본 작업에 있어 자화상의 이미지는 살과 피를 지닌 한 개인의 일상으로 이는 곧 나 자신의 투영임과 동시에 본인의 살 내가 풍기는 단면인 것이다.

연구자는 자전적 표출을 통해서 ‘나’에 대한 정체성과, 여성성을 표현하고, 무표정하며 무엇인가를 응시하는 이미지들로 화면 밖, 관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4. 그로데스크적 표현

본 연구자 작품에서 그려진 인형은 대부분 그로데스크한 표현들로 이루어진다. 이는 인형을 기괴한 형태로 변형하여 왜곡시킴으로 나타내고자 정체성에 한발 더 다가서려는 의도이다.

그로테스크(grotesque)란 어원적으로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관련되며, 이탈리아 그로테(grotte)라는 동굴의 의미로부터 그로테스크라는 말이 유래 하였다. 이는 기괴하고 이질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즐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소름끼치는 내용과 희극적인 표현양식 사이의 괴리감이 빚어내는 감흥이다. 이는 정상의 상태를 벗어나는 과장과 극단은 그로테스크의 전형적 속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로테스크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따라서 그것이 불러 일으키는 불편함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²⁴⁾ 그로테스크한 표현에 있어 작업과정은 캔버스에 두껍게 젯소를 펴 바른 후 인형과 자화상의 이미지를 드로잉 하여 그 위에 젯소와 아크릴 물감이 혼재된 것을 다시 한 번 펴 바른 후 작업을 진행 시킨다. 여기서 드로잉을 한 후 젯소를 바르는 것은 연필의 느낌을 살짝 덮어 유화물감위에 연필이 비춰 보이는걸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종전에 아크릴 물감의 바탕위에 유화물감을 사용하는 방식은 물감이 캔버스에 잘 펴 발라지고, 물감의 특성으로 캔버스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며, 부드러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명한 효과를 살리기 위해 마른 평면 붓으로 여러 번 붓질을 해주면 물감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혼합되어 유리를 끼운 듯 사이버텍 한 표현이 가능해 진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작품 구상에 있어 화면구성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탕화면 위에 드로잉된 자화상의 이미지를 그로테스크한 표현으로 나타낸다. 유화로서 그로테스트적인 표현²⁵⁾은 고딕체에 대한 유럽식 명칭이기도하다²⁶⁾ 글레이즈(glaze) 기법²⁷⁾을 통해 보여 지는<반짝반짝 빛나는>(도판-19)인형 얼굴과 몸의 외각 부분에 부드럽지만 선명한 윤곽선을 표현한다. 그로테스크한 표현과 신체에서 나타나는 변형과 왜곡은 억눌린 자아의 표출을 나타내며, 배경과 자화상의 이미지를 분리시킴으로써 인물의 이

24) 김홍희, 「페미니즘, 비디오, 미술」, 서울:재원, 1998, p.277.

25)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Grotesque realism) : 라블레에 관한 바흐쾨의 문학 이론에서 나온 용어로, 카니발적 현상이 하나의 역동적인 소설 기법으로 수용된 문학적 양식을 가리킨다. 그로테스크한 예술 기법은 기존의 고정된 사물의 형태나 예술적 양식을 일그러뜨리거나 과장된 모습으로 부풀려 자유분방하고도 기상천외한 형태로 재창조해 내는 것을 말한다. 라블레에게 있어 그로테스크한 기법은 세계에 대한 그릇된 정체성을 파괴하고 재정립하며, 사물과 관념사이의 허위에 가득찬 위계적 연결 관례를 분리시키고, 사물들을 그로부터 해방시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타고남 본성에 맞는 자유로운 결함과 이상적인 생명성의 고양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예술적 욕구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26) 네이버 지식 백과

27) 글레이즈(glaze) 기법: 유화물감을 투명하게 희석시켜서 그림의 특정 부분은 투명하게 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일반 것으로 글레이즈는 물이 고여 있는 듯이 광택을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미지를 인물의 이미지를 두각 시켜 나타내고자 한다.



(도판-19)

화면의 바탕은 붓 터치 중첩으로 본 화면이 나타내고자 하는 자아의 복잡한 심리상태를 표현하고 다시금 얽힌 물감의 몇 번의 덧 칠들로 깊이 감을 주려고 했다. 분출하고 싶지만 억눌린 여성의 자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점을 한 층 더 부각시키기 위해 인물의 얼굴에 그로데스크적 표현을 가함으로써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가지려 했다.

<반짝반짝 빛나는>(도판-19)의 작품에서 차가운 느낌의 인형은 그로데스크적 표현으로 금방 녹아버릴 듯한 얼음과 같은 느낌을 준다. 본인은 이 작품에서 아이의 다중적인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다. 여러 분신들은 정면을 응시하며, 각자에 나타난 얼굴 모습으로 달라지는 자아의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천박하고 가증스러우며, 욕심으로 가득 찬 자아의 모습, 등 여러 가지 모습이 뒤섞여 버린 여성의 모습에서 그 중 ‘나’ 라는 존재를 표현한다. 인형에 안정감을 주기 보다는 기괴한 형태로 표현하였고, 화려한 색감보단 단순한 색감들로 한가지의 색 안에 여러 가지 색을 표현하며 악세사리로 작품의 재미를 더해주었다.

<바라보기1>(도판-20)<바라보기2>(도판-21)에서도 얼굴의 외각 선을 통해 사이버틱하며, 유리를 끼운 듯 인위적으로 보이기 위해 그로데스크 효과를 보여주었다. 작품 안에서 인형은 화면 안에 작은 별을 응시하고 있다. 여성의



(도판-20)



(도판-21)

냉소적인 이미지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내면의 감춰진 또 다른 모습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사용된 붉은 빛은 여성의 그리고 얼굴의 피부색과 같은 그 입술은 지극히 평면적이면서도 반짝하는 단 한 점의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여 촉과 입체감을 동시에 부여하는 효과를 노렸다. 가장 알팍하면서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자극적으로 표현했다.

<목표달성>(도판-22)작품에선 인형의 형태와 본인만의 캐릭터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평면적이면서 캐릭터 적인 나만의 분신으로 화려한 색채를 구성하여 그로데스크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파스텔 톤의 색상과 밝은 분위기의 표정을 묘사하여 수많은 감정들 속에 살고 있는 인형들을 표현하였다. 각기 다른 얼굴에 표정의 변화를 주고 단순한 화면의 구상이지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표정에 더 많은 시선을 주기 위함이다. 끊임없는 과거를 회상하고, 또 다른 자아를 통해 잃어버린 감성을 되찾고자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감성을 깨우치게 한다.

본인의 작품 속에 인형을 통하여 주체적인 자아를 표현하고, 그 자아로 인해 인형 속에 투영된 자아의 세계를 보여주려 하였다. 작품 속 인형의 얼굴은 인간의 신체 중 내적 통일성을 보여주는 가장 외적인 척도이며 이 형상은 각 개인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기억들을 떠오르게 한다.



(도판-22)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로테스크적 표현을 위해 페인팅 방식을 고려하여 평면적 구도에서 인형의 사실적 묘사를 시도하였다. 단조로울 수 있는 구도에서 밝은 색감으로 여성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형의 눈은 사실적 형태로 나타내며, 감상자의 시선으로 초점을 맞췄다.

제3장 결 론

연구자는 작업과정의 주체인 자화상을 통해 여성의 내면에 대한 인식이 작품으로 표현 되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의식 표출의 장르로 인형을 선택하여, 인형의 시선을 통해 여성의 외적인 모습을 표현했다. 이번 연구과정을 토대로 자화상의 의미를 알고, 자신을 표현한 작가들의 작품에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자화상을 그리는 의미를 알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을 표현한 작가 프리다 칼로와 신디 셔먼의 작품을 본인의 작품과 비교하면서 작품의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페미니즘 미술에 관한 개념과 그에 따른 작가들은 살펴보게 됨으로써 본인의 작품과 페미니즘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다. 작가 자신의 정신세계를 구체화 시켜 그것을 시각화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타인과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고 나 자신을 인형으로 물질화 시키며, 그 대상에 전이된 시선을 통하여 스스로를 바라 볼 수 있었다. 인형은 본인의 사적 경험인 심리적 정황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본인의 손을 떠나 공간과 사람들 속에서 본인을 직시 하는 객체가 된다. 타자의 위치에서 본인을 바라보는 인형의 시선을 통해서 본인은 다시금 스스로를 생각하며 각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된 작업은 자신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인식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자화상이라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소재와 주관적인 인물 표현으로 대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함에 있어 표현방법에 더욱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본인은 자아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색함으로 내외면 뿐 아니라, 현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대 여성이 처해있는 시대적 현실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위 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며, 사회 속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또 본 연구를 통해 본인만이 독창성을 갖는 조형적인 언어로 표현해 나갈 수 있는

작품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작품을 통하여 본인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고 예술을 통해 사회의 통념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1. 김금운.김정숙.박영희.서리나.송경용,오세근,이석주,이주희,전의찬,황광연, 「현대여성과 사회」, 양서원, 2001.
2. 김홍희, 「페미니즘,비디오,미술」, 서울:재원, 1998.
3. 롤로메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문예출판사, 1974.
4. 우성주, 「프리다 칼로, 타자의 자화상」,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6, 2011.
5. 이원구,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내일을 여는 책, 1997.
6. 이혜숙, 「여성과 사회」, 경상대학교출판부, 2005.
7. 전준엽, 「나는 누구인가」, 지식의 숲, 2011.
8. 조선미, 「화가와 자화상」,예경, 1995.

<참고 논문>

1. 강경숙, 「신디 셔먼의 미술사진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9.
2. 김지영, 「인형에 투사된 자아인식의 표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3. 김희조, 「자화상의 표현 양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4. 민들레, 「미술에 있어서 페미니즘의 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2012.
5. 전성주, 「페미니즘 미술의 특성에 대한 연구」, 대구카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6. 전지원, 「자화상을 통한 ‘자아’ 표현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단행본>

1. 이영준, 「사진속의 신체 감시와 찬미의 변증법」, 월간미술, 1977.10.

<인터넷 자료>

1. <http://mail.hyejeon.ac.kr/~takang/hobol.html>

<참고 도판>

- 도판1. <벨벳 드레스를 입은 자화상>, 프리다 칼로, 79.7 x 59.9cm, 멕시코 시티 개인소장, 1926.
- 도판2. <테우아나 차림의 자화상 혹은 내 생각속의 디에고>, 프리다 칼로, 76 x 61cm, 메소나이트에 유화, 멕시코시티, 하케스 & 나타샤 헬만 소장, 1943.
- 도판3. <짧은 머리를 한 자화상>, 프리다 칼로, 27.9 x 40 cm 캔버스에 유화, 뉴욕 현대미술관 소장, 1940.
- 도판4.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 프리다 칼로, 62.2 x 47.6cm, 캔버스에 유화, 개인소장, 1940.
- 도판5. <헨리 포드 병원>, 프리다 칼로, 30.5 X 38cm, 메탈에 유화, 개인소장, 1932.
- 도판6. <무제21> Untilted, 신디 셔먼, 1978.
- 도판7. <무제56> Untilted, 신디 셔먼, 1980.
- 도판8. <무제183> Untilted, 신디 셔먼, 1994.
- 도판9. <무제253> Untilted, 신디 셔먼, 1992.
- 도판10. <무제259> Untilted, 신디 셔먼, 1992.
- 도판11. <무제355> Untilted, 신디 셔먼, 2000.
- 도판12. <무제458> Untilted, 신디 셔먼, 2007.

<본인작품 목록>

- 작품13. <수줍은 소녀>, 안희주, 162×130cm, 캔버스에 유화, 2012.
- 작품14. <자화상>, 안희주, 33.3×24.2cm, 캔버스에 유화, 2012.
- 작품15. <분신1>, 안희주, 162×130cm, 캔버스에 유화, 2010.
- 작품16. <꿈의궁전1>, 안희주, 150×150cm, 캔버스에 유화, 2012.
- 작품17. <자매>, 안희주, 162×130cm, 캔버스에 유화, 2012.
- 작품18. <백마타자 바비인형>, 안희주, 162×130cm, 캔버스에 유화, 2011.

작품19. <반짝반짝 빛나는>, 안희주, 162×130cm, 캔버스에 유화, 2011.

작품20. <바라보기1>, 안희주, 40.9×318cm, 캔버스에 유화, 2012.

작품21. <바라보기2>, 안희주, 40.9×31.8cm, 캔버스에 유화, 2012.

작품22. <목표달성>, 안희주, 162×130cm, 캔버스에 유화, 2012.